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조 명 철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 지 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제재 전개과정
2. 최근 유엔 내에서의 대북제재 동향
3. 북한의 대응 전망

주요 내용

- ▶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는 모두 세 차례가 있었음.
 - 첫째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 7월 16일에 발표한 결의 1695호이고, 둘째는 그해 10월 15일에 발표된 결의 1718호이며, 세 번째는 2009년 4월 13일의 의장서명임.
- ▶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다룰 수 있는 대북제재는 △유엔 회원국들과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기업·기관들과의 경제·금융거래 금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으로의 여행 제한 등임.
-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15일 미국과 일본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한 제재대상 기업은 각각 11개 및 14개임.
 -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제출한 명단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광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통성기술무역회사 △조선해성해운회사 등 11곳임.
 - 일본이 추가로 안보리에 제출한 기업기관은 3곳으로 명단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센터 △봉화병원임.
- ▶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제재명단 중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대상은 3곳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제재위가 확정, 발표한 제재대상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임.
 -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14일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하였다고 발표하고, 북한 외무성은 4월 24일 조선중앙방송에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반대하였다고 발표함.
- ▶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새로운 대화구조 유도 △자주적 핵동력 개발 △핵 억제력 강화(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이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결정한 이번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 북한이 개별 국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한반도 긴장 조성 등이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자 석방문제도 협상카드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한국의 PSI 참여와 관련해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임금 및 임대료 인상 △현대아산직원의 억류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핵·미사일 개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제재 전개과정

■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는 모두 세 차례가 있었음.

- 첫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7월 16일 결의 1695호를 발표함.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함.
- 결의 1695호는 북한에게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과 관련된 제품, 재료, 기술이 북한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분됨.
-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유엔 결의 1695호는 자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상식 밖의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문제시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배격한다고 발표함.
- 둘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응하여 2006년 10월 15일 결의 1718호를 발표함.
- 이에 대응하여 유엔은 유엔헌장 7장¹⁾이 적용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함.
- 결의 1718호의 주요 내용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부품, 기술 제공 금지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 촉구와 북한 화물선 검색 규정 등임.
-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되자 하루 만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셋째, 유엔 안보리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4월 13일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구체화하였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과 동결자산의 구체적인 명단 선정 등의 계획이 반영된 의장성명을 발표함.

- 의장성명에는 안보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따라주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²⁾

- 의장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북한 외무성은 곧바로 6자회담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히고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발표함.

■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과 조치는 크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9.4.5) △안보리 위원회 소집(2009.4.5)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2009.4.14) △안보리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의 제재대상 확정(2009.4.24 현지시간)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음.

2. 최근 유엔 내에서의 대북제재 동향

■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작성을 제재위에 위임하였음.

- 제재위가 다룰 수 있는 대북제재는 △유엔 회원국들과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기업·기관들과의 경제·금융거래 금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으로의 여행제한 등임.
- 미국과 일본이 제재위에 각각 11개 및 14개의 제재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제재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제재명단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3곳임.³⁾
- 최종 제재대상이 3곳으로 감소한 원인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하였다고 공식 발표함.⁴⁾
- 북한 외무성은 4월 24일 조선중앙방송에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에 반대하였다고 발표함.⁵⁾

2) 연합뉴스(2009.4.14),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3) 연합뉴스(2009.4.25), 『대북제재 북 기업 제2경계위 소속』.
 4) 연합뉴스(2009.4.15), 『중 안보리 제재에 반대했다 강조』.

1) 유엔헌장 7장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함께 제시되어 있음.

표 1.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의 제재대상(2009.4)

소속	제재 기업	상부기관	소재지	특징
조선용봉 총회사	조선용봉 총회사	제2경제위원회	평양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회사. 미사일 수출 담당
	단천상업 은행	총정치국 54부	평양	조선용봉총회사의 대외결제전문은행. 재래식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제조, 조립제품 금융 결제 담당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계좌를 갖고 부적절한 거래를 한 혐의
조선광업 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제2경제 위원회 4총국	평양	1990년대 중국 이란 파키스탄과 미사일 거래 의혹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 수출 혐의

자료: 연합뉴스(2009.4.25).

■ 제재대상은 향후 북한의 대응태도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에 제출한 명단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4월 15일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에 제출한 제재명단은 11개, 일본은 14개이며, 이 가운데 중복된 명단은 조선용봉총회사 산하의 8개 기업·기관,⁶⁾ 조선광업무역회사 산하의 3개 기업·기관⁷⁾이 포함된 11개임.

○ 조선용봉총회사

- ▶ 북한 평양특별시 보통강구역 낙원동에 위치한 조선용봉총회사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임.
- ▶ 방위 복합기업체인 이 회사는 미사일 수출과 군수물자 확보, 군사 관련 물자 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군수업체로 알려져 있음.
- ▶ 주요 수출품에는 △비철금속, △기계 △설비 △부품이 포함되며,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철강공장, 기계공장, 화학공

5) 연합뉴스2009.4.24), 『북 외무성 러, 대북제재 반대입장 재확인』.
 6) 조선용봉총회사 산하의 기업·기관에는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 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광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 합병회사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등이 있음.
 7) 조선광업무역회사 산하의 기업·기관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통성기술무역회사 △조선해성해운회사 등이 있음.

장, 비금속광산 등 10여 개 전문제조공장과 연계되어 물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⁸⁾

○ 조선광성무역회사

- ▶ 평양 보통강구역 낙원동에 위치한 조선광성무역회사는 당 제38호실 소속임.
- ▶ 이 회사는 무기제조와 관련된 금속제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음.
- ▶ 주요 수출품에는 강판, 각강, 마그슘괴, 탄화텅스텐, 전기 니켈, 모리브덴, 남정석, 천연광천수 등이 있고, 주요 수입품에는 알루미늄, 코크스, 망간, 산업용 기름, 베어링 등이 있음.⁹⁾

○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 ▶ 평양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는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음.
- ▶ 전문 연구소와 공장을 보유한 이 회사는 연구소에서 전기 스파크를 이용한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무기관련 제품 및 다양한 기계제품들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¹⁰⁾
- ▶ 주요 수출품에는 선절단 선반중 연하브랜드의 △500B형과 △260A형이 있음.

○ 조선용광무역회사

- ▶ 평양 보통강구역 낙원동에 위치한 조선용광(용왕)무역회사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임.
- ▶ 이 회사는 국제화학합영회사와 련화기계합영회사를 운영하면서 무기제조와 관련된 물품들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음.
- ▶ 주요 수출품에는 화강암, 방해석, 알루미늄제품, 볼트류, 플라스틱제품 등이 포함되고, 주요 수입품에는 전자부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괴 등이 포함됨.¹¹⁾

8) 코트라(2002),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9) 코트라(2002).
 10) 코트라(2002).
 11) 코트라(2002).

○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구 조선국제화학공업회사)**

- ▶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이 회사는 조선용봉총회사와 국제무역주식회사 간의 합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된 제품을 생산, 수출한다는 협의를 받고 있음.
- ▶ 이 회사는 북한 내 풍부한 모나자이트를 처리하여, 20여종의 희토원소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중국, 일본(2006년 이전까지), 스페인, 홍콩 등지에 수출함.¹²⁾

○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 ▶ 평양시 보통강구역 낙원동에 위치한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구 조선해금강무역회사)는 인민무력부 소속임.
- ▶ 군 소속의 이 회사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음.
- ▶ 주요 수출품에는 △방직품 △화섬 △기계설비 △선반 등이 포함됨.¹³⁾

○ **조선부강무역회사**

- ▶ 보통강구역 낙원동에 위치한 조선부강회사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임.
- ▶ 이 회사는 전략물자로 구분된 전기제품과 기계, 부속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10개 이상의 지사 혹은 판매점을 보유한 대규모의 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 ▶ 주요 수출품에는 △전기제품 △기계 및 부속품 △화학제품 △실리콘강 △고순도 안티몬 △고순도 표백제 △방화페인트 △전해아연 △묘향산생물 △주물제품 △고무제품 △민수용 화약 △플라스틱제품 △매듭 △농수산물 등이 있고, 주요 수입품에는 △코크스 △면직물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 △공업용유류 △페인트원료 등이 포함됨.¹⁴⁾

○ **단천상업은행(구 창광신용은행)**

- ▶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 1동에 위치한 단천상업은행(구 창광신용은행)은 인민무력부 54부 소속으로 조선용봉총회사의 대외결제전문은행임.
- ▶ 이 은행은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금융 결제를 담당하며, 이 회사의 전신인 창광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 아프리카로 매각한 무기대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⁵⁾

표 2. 조선용봉총회사 관계·산하 기관 정보

소속	제재 기업	상부기관	소재지	특징
조선용봉총회사(구 용약산무역회사) 관련회사	조선용봉총회사	제2경제위원회	평양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회사. 미사일 수출 담당
	조선광성무역회사	38호실	평양	금속제품 수출입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인민무력부	평양	기계류(제품) 연구, 생산 및 수출
	조선용광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	평양	광산물 수출,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수입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조선국제화학공업회사)	제2경제위원회	함흥	화학(관련)제품 수출입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구 조선해금강무역회사)	인민무력부	평양	방직품, 화섬, 기계설비, 선반 수출
	조선부강무역회사	제2경제위원회	평양	전기제품, 기계 및 그 부속품 수출 등. 자회사인 부강계약사는 한국에 판매점을 갖고 있음. 중국 등 10개국에 지사 보유
단천상업은행(구 창광신용은행)	조선노동당 54부	평양	조선용봉(용봉)총회사의 대외결제전문은행.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제조, 조립제품 금융 결제 담당.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계좌를 갖고 부적절한 거래를 한 혐의	

자료: Joins(2009. 4. 17); 동아일보(2006. 10. 21).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 ▶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제2경제위원회 4총국 소속임.
- ▶ 이 기업은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와 설비수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지점을 통해 무기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⁶⁾

12) 코트라(2002).
 13) 코트라(2002).
 14) 코트라(2002).

15) 연합뉴스(2009.4.15), 『미, 안보리에 11개 북기업 리스트 제출계획(요미우리)』.

16) 아시아 투데이(2009.4.15), 『미, 북 자산동결기업 11곳 명단 안보리 제출예정』.

- ▶ 또한 이 회사는 1990년대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과 미사일 거래를 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토성기술무역회사

- ▶ 평양에 위치한 토성기술무역회사는 조선노동당 38호실 소속임.
- ▶ 이 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회사로 파악됨.

○ 조선해송무역회사

- ▶ 평양에 위치한 조선해송무역회사는 조선노동당 소속임.
- ▶ 이 회사는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제조 관련 물품을 수출입하는 전문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음.

- ▶ 일본은 자체 정보를 통해 이 회사가 자체 선박들을 통해 북한의 무기생산 및 다른 국가들과의 무기거래에 관련된 장비나 부속품, 물품들을 운송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림.

○ 평양정보센터

- ▶ 평양 보통강구역 경흥동에 위치한 평양정보센터는 조선노동당 소속임.
- ▶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며, 다른 국가들¹⁸⁾과 기술을 교류하는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로, 이중용도 제재대상 업체로 알려져 있음.
- ▶ 이 회사가 개발하는 주요 프로그램에는 △언어정보처리 △기계번역 △문서편집 △다국어입력 △컴퓨터 지원 설계(CAD) △네트워크 △자료기지 △폰트 △다매체 등이 포함됨.¹⁹⁾

○ 봉화병원

- ▶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위치한 봉화병원은 형식적으로는 보건성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임.
- ▶ 이 기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 부부장 이상의 고위 간부 및 그들의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진료 시설로, 해외에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들여오는 북한 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은 김정일 위원장 일가 및 북한 내 특수 권력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이 병원을 대북제재 적용리스트에 새롭게 추가함.

표 3. 조선광업무역회사 산하기관 정보

소속	제재 기업	상부기관	소재지	특징
조선광업 무역회사 (구 광신용 무역회사) 관련회사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제2경제 위원회 4총국	평양	1990년대 중국 이란 파키스탄과 미사일 거래 의혹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 수출 혐의
	토성기술 무역회사	38호실	평양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제조 관련 기술이전
	조선해송 무역회사	조선 노동당	평양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관련 제품 수출입

자료: Joins(2009.4.17); 동아일보(2006.10.21).

- 중복된 11개 북한 기업·기관 이외 일본이 추가로 안보리에 제출한 기업·기관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센터 △봉화병원 3곳임.¹⁷⁾

○ 조선동해해운회사

- ▶ 평양에 위치한 조선동해해운회사는 인민무력부 소속임.
- ▶ 이 회사는 북한의 주력 선박 가운데 70%를 소유한 전문 운송업체로 파악됨.

표 4. 일본 기업이 추가로 지정한 대북기업기관 정보

소속	제재기업	상부기관	소재지	특징
일본 정부가 추가로 지정한 제재 기업	조선동해 해운회사	인민 무력부	평양	북한 주력 선박 70% 소유
	평양정보 센터	조선 노동당	평양	정부기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한국기업과 제휴해 프로그램 등 개발 학술단체로 위장해 한국대학교도 교류
	봉화병원	조선 노동당	평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일부 간부 전담 진료

자료: Joins(2009.4.17); 동아일보(2006.10.21).

17) Joins(2009.4.17), 『미, 일 북한기업 14곳 해외자산 동결해 달라』 (http://pdf.joins.com/index.asp?form_type=article_f&id=DY01200904170002).

18) 중국, 싱가포르, 일본(2006년 이전까지)이 대표적인 국가들임. 한국기업과 제휴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도 있음.

19) 평양정보센터(<http://www.pic-international.com>).

3. 북한의 대응 전망

가.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

■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3개 항으로 정리하여 강경한 대응입장을 표명함.

- 첫째, 북한은 안보리의 추가 미사일 발사 제재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함.

○ 북한은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 자주적 우주이용권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리 의장성명을 거부함.

- 둘째, 북한은 6자회담의 폐기와 6자회담 합의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함.

○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기회로 전락되었다고 언급하면서, 6자회담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셋째,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의지를 표명함.

○ 북한 외무성은 4월 14일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이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취한 일련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거부입장을 나타냄.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4월 24일(현지시간) 제재위가 북한 기업·기관 3곳을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들의 결정을 배격할 것이라고 발표함.²⁰⁾

나. 향후 북한의 대응 수단

■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새로운 대화구조 유도 △자주적 핵동력 개발 △핵 억제력 강화(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이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국제사회가 결정한 이번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6자회담에서 탈퇴하는 대신, 좁게는 미국과의 양자대화 구도를 형성하고, 넓게는 북-미-중 새로운 3각 협력구도를 추구하는 전술을 통해 북핵문제를 논의, 진행하려 할 것임.

○ 노동신문은 지난 1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하여 6자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공식입장을 전달함.

▶ 북한의 6자회담 절대 불참의지에 대해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등 모든 주변국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북한은 6자회담 복귀 거부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외교적 노력을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임.

○ 동시에 북한은 새로운 북핵 해결구도를 구축하여 이 안에서 미사일-핵 문제를 논의, 진행해가는 전술을 취할 것임.

▶ 조선신보는 4월 25일 한반도 평화보장문제 해결과정에서 주요참가자와 참관자가 구별될 것임을 보도하면서, 단독제재를 강행한 일본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한국이 다자협상구도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함.²¹⁾

▶ 북한은 24일 제재위의 발표 이후 리영호 총참모장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동시에, 다음날 조선신보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을 거론하며 북한의 대미협상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냄.

▶ 한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²²⁾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경수로 발전소 자체건설 등을 통해 핵동력을 개발하려고 할 것임.

○ 북한 외무성은 4월 14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하여 핵시설들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와 정상가동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함.²³⁾

○ 북한은 이달 14일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개발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해갈 것임.

21) 연합뉴스(2009.4.25), 『北대변 조선신보, 美와 협상의지 우회 표명』.

22) 연합뉴스(2009.4.17), 『北 김영남, 방북 中정협 부주석 면담』; 연합뉴스(2009.4.24), 『러 외무성, 러, 대북제재 반대입장 재확인』.

23) 연합뉴스(2009.4.15), 『IAEA 북 검증요원 추방령 통보』; 연합뉴스(2009.4.26), 『북 재처리로 핵억제력 강화 위협 행동화』.

20) 연합뉴스(2009.4.25), 『북, 안보리 제재 철저히 배격 반발』.

- 조선신보는 이달 24일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이 신문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중,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입장을 취할수록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세워갈 것임을 보도함.²⁴⁾
- 북한 외무성은 이달 29일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거부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범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함.
 -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핵연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농축 기술개발의 착수계획을 암시함.²⁵⁾
- 북한이 개별 국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한반도 긴장 조성 등이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자 석방문제 등의 협상카드도 사용될 수 있음.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주요한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임.
 -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생산·거래 활동을 꾸준히 감시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기술교류 및 물품거래가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한 활동사항까지 감시해오고 있음.
 - ▶ 또한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문제를 의식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한반도 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들을 꾸준히 전개해갈 것임.
 - ▶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주요 관심사들을 역이용하여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이 자국민 보호에 민감하다는 점을 통해 여기자 석방문제를 또다른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 ▶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회부 결정을 공식 보도하였는데, 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강경 대응입장을 밝힌 이후 발표된 처사임.
 - ▶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 여기자들 문제를 북미관계에서 쟁점화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한국의 PSI 참여와 관련해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임금 및 임대료 인상 △현대아산직원의 억류 등이 될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PSI 참여원칙을 발표함.
 - ▶ 현재 한국정부는 PSI에 가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 첫째, 한국의 PSI 참여입장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조평통을 통해 이를 선전포고(3.30)로 규정하는 동시에 단호하게 대처해갈 것임을 밝히면서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킴.²⁶⁾
 - ▶ 조평통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발표함.
 - ▶ 같은 날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서울과 군사분계선 간의 거리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시사함.²⁷⁾
 - 둘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임금 및 임대료 인상을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임.
 - ▶ 북한은 4월 21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2014년부터 지불하도록 계약된 토지사용료를 4년 앞당겨 2010년부터 지불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북측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도 요구함.²⁸⁾
 - ▶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징수시기 변경 및 임금인상이 차후 남북협상에 있어 북한의 협상카드로 작용될 것이 전망됨.
 - 셋째, 현대아산직원의 억류문제는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사용할 또다른 협상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됨.

24) 연합뉴스(2009.4.24), 『조선신보, 북 핵시험 가능성 시사』.
 25) 연합뉴스(2009.4.29), 『북, 핵시험, ICBM 시험 위협』.

26) 연합뉴스(2009.4.19), 『북, 서울위협 군사긴장 재차 고조』.
 27) 연합뉴스(2009.4.18), 『北군부, PSI 전면참여 저지 거친 위협』.
 28) 연합뉴스(2009.4.24), 『개성공단 地賃징수시기 북 주장에 오류』.

- ▶ 북한은 지난달 30일 체제비방 및 탈북 선동 등의 혐의로 현대아산직원 한 명을 붙잡아 억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억류된 직원에 대한 남측 인사들의 접견을 불허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현대아산직원의 신병인도와 연계하여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움.²⁹⁾
-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양국간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북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이를 통해 6자회담 내에서 일본의 활동범위는 급속히 좁아짐.
- ▶ 6자회담 구도에서 일본의 고립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과 부정적 입장은 더욱 강경해짐.
- ▶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복귀를 촉구한 반면, 북한은 추후 대화구도에서 일본의 배제 가능성을 시사함.
- ▶ 이러한 6자회담 구도 유지(일본의 참가) 및 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과 일본의 입장차는 북한이 추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발사 활동 △핵실험 감행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음.
-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핵실험 감행 등을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음.
- ▶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우려를 일본과의 협상카드로 역이용할 수 있음. **KIEP**

29) 연합뉴스(2009.4.23), 『정부, 억류해결 후협상 관철될까』.